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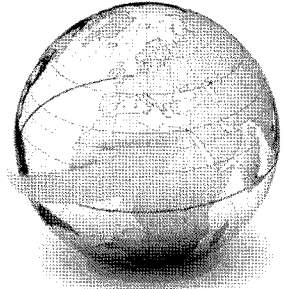


위기속 세계경제, 환경 및 기술규제 지속적 강화

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추세

보호무역주의 확대

- 세계적 경제 위기속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확대·강화 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남
- WTO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'09년 1/4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전년 동기(316건) 대비 27%이상 증가
- ※ ('06) 875건 - ('07) 1,031건 - ('08) 1,251건 - ('09.3) 411건



-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, 시험·검사 등 적합성 평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하므로, 자국기업들에 비해 수출기업들은 제품설계 변경 등 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혼란을 겪게 됨으로써 결과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

세계 주요국들의 정책

- 미국, EU 등 선진국이 기존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개도국들은 공산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추세
- 미국은 지난해 8월 “소비제품안전개선법”을 새로이 제정하고,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있음

- 이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 중 600ppm(0.6%) 이상의 납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금년 8월 14일 이후부터는 납 함유량을 300ppm 이하로 더욱 강화할 계획임
- 따라서,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하여 선적 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
 - ※ ('06) 875건 - ('07) 1,031건 - ('08) 1,251건 - ('09.3) 411건
- '08년 이후 인도, 인도네시아, 태국, 에콰도르 등 개도국에서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
 - 규제에 활용되는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입수가 어렵고 시험인증에 자국기관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여 사실상 보호무역조치와 동등한 효과 발생.
 -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발표한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계획과 관련,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인도의 경우 일본 및 EU와 공조하여 1년간 시행을 연기토록 한 바 있고, 인니의 경우 '09.3월 인니 표준청을 방문하여 상세 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시행연기를 요청해놓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
 - ※ 對 인도 철강제품 수출액 : 14 억불('08)
 - ※ 對 인니 열연재, 갈비늄 수출액 : 1.86 억불('08)

우리나라의 향후 계획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남인석)은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'09.4.23(목) 14:00에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함
-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“경제위기 상황 이후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인 바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”라고 말하고, “'08.9월에 개소한 TBT 중앙사무국에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한편 WTO/TBT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주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최소화시키겠다”라고 말함

